

여가정책 만족과 여가생활 만족의 관계에서 세대의 조절효과: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중심으로

송금희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세대에 따른 여가정책이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대 맞춤형 여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자료인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를 기반으로 세대별 여가정책 만족과 여가생활 만족에 대한 비교를 측정하였다. 연구의 측정 항목은 7점 Likert 척도로 여가정책 만족 변수 7개, 여가생활 만족 변수 3개의 설문 문항을 포함하였다. 세대는 청년층은 15~19세와 20~30대를 포함하고 중장년층은 40대와 50대, 고령층은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최종 수집된 10,040개의 표본 자료는 SPSS 28.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Hayes(2022)의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여 여가정책 만족과 여가생활 만족 관계에서 세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고령층에서 여가정책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중장년층과 청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보였다. 특히 고령층은 여가정책의 혜택을 강하게 체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포괄적이고 접근이 가능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세대별 여가정책의 차별적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여가정책 설계 및 실행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여가정책, 여가생활 만족, 국민여가활동조사, 세대연구, 세대별 차이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여가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양례, 2009; 이명우 외, 2016; 한상겸, 2022). 특히, 여가 활동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김정인, 2024). 여가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 정신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여가산업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문화와 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 정부는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여가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2015년 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할 의무를 명시하여 여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박수정 외, 2023; 조승행, 2024). 이 법의 목적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여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여가 참여를 촉진하고, 여가 인프라를 확충하며 여가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반면, 지방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여가정책을 수립한다. 국가의 여가정책을 지역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고 실행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집중한다. 즉, 특정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여가시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 국가와 지방 정부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지방 정부는 정책을 지역에 맞게 구체화하고 협력하여 전반적인 여가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세대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가와 관련한 세대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혜진 외(2016)의 연구에서 세대별 여가 인식, 활동 그리고 행복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세대 간 여가와 노동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여가에 대한 선호가 높고, 노년 세대는 노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가 활동 유형에 따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활동적인 여가 참여가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균 외(2021)의 경기도민 세대별 여가 활동 연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간 여가 활동 가치관 차이가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는 여가와 일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여가만족도가 가장 높았지만, Z세대는 경제적 부담과 여가 활동의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여가 활동 목적은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개인의 즐거움’을 우선시켰으며, 시니어 세대는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들 연구는 세대별 여가에 대한 다양한 인식 차이를 이해하고, 세대별 맞춤형 여가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숙희(2009)는 연령에 따른 여가 활동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가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젊은 세대는 운동, 여가 여행, 문화 활동 등의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반면, 고령층은 건강 및 휴식 관련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영금과 윤소영(2018)의 연구에서는 ‘2016년 국민 여가 활동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세대별 여가 행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여가정책 설계 시 세대별 특성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여가정책이 세대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대별 여가 활동의 유형과 선호가 다르므로 여가정책의 효과도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조민구, 2015; 전형상, 2017) 젊은 세대는 부족한 여가 시간에 비해 여가비용 지출이 많고 행복감도 높았지만, 고령층은 접근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이 부족해 여가 활동 참여에 제약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경선, 2020; 윤혜진 외, 2016; 김수아·김남조,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가정책 만족과 여가생활 만

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세대별로 여가정책의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각 세대에 맞춘 맞춤형 여가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한다. 세대별 여가정책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각 세대의 특성에 맞는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지방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지방 정부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가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여가정책 개념 및 선행연구

여가정책은 정부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립하고 실행하는 공공정책의 한 분야로, 국민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형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김정훈, 2024).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여가 시간이나 지출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 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통합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조승행, 2024). 여가정책은 국민복지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 조직, 집행 과정에서 제도적·재정적 노력을 포함하며 기회의 확대, 여가 환경 개선, 여가 정보서비스 제공 확대 등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 이윤영, 2019). 여기에 포함되는 주요 요소로는 각 세대에 맞춘 맞춤형 여가정책, 공정한 여가 기회 제공, 그리고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의 접근성 개선 등이 있다. 여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개개인의 여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영위하며, 나아가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다.

여가정책 개념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여가정책은 정부가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결정하고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여가정책은 국민의 자아실현, 사회적 형평성 구현, 여가 기회 확대, 여가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며, 여가 행정행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으로 여가 참여 실태, 여가 행정체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여가시설과 서비스 등이 주요 요소로 다뤄진다. 또한, 여가정책은 국민의 평등한 여가 기회 보장과 여가생활 향상, 여가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며, 여가 참여를 유도하고 장려하여 국민복지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표 1).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가 활동의 양적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이 여가 활동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질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이명우 외, 2016).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가정책을 통해 직장인들이 여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연령대가 동등하게 여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여가가 단순한 시간의 소비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임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차재빈, 2018; 한진오 외, 2019). 따라서 여가정책은 그 자체로 국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며, 지속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을 통해 국민의 여가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 여가정책 관련 선행연구들은 특정 세대나 집단의 여가 활동 실태와 그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여가 활동의 제약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 왔다.

〈표 1〉 여가정책의 개념

연구자(연도)	여가정책 개념
김광득 (1994)	여가정책이란 정부가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 차원에서 결정하고 수행하는 모든 활동. 국민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형평성 구현, 여가 기회 확대, 여가 환경 개선, 여가 정보서비스의 제공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음
노화준 (1996)	여가정책이란 국민의 여가 발전을 위한 여가 행정행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업무 범위와 방향을 제시하는 시책으로, 여가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에는 국민 여가 활동 참여 실태, 여가 행정체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여가시설 및 서비스 등의 요소들과 이와 관련된 정책 과정, 여가 환경 등이 포함됨
김선희·김현나 (2005)	문화, 스포츠, 관광, 레크리에이션 분야를 포함하여 국민의 평등한 여가 기회 보장과 여가생활 향상, 여가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	여가정책은 국민복지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 조직, 집행 과정에서 제도적·재정적 노력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여가정책은 여가 기회의 확대, 여가 환경 개선, 여가 정보서비스 제공 확대 등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됨
한수정 외 (2010)	여가정책은 여가 행정을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방법 및 내용을 가리킴. 정부가 국민의 여가 활동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는 한 거기에는 자연히 여가에 관한 정책이 요구됨
조민구 (2015)	여가정책은 여가 참여자인 국민이 여가 활동 참여 실태, 여가 관련 정부 기관과 행정체계 그리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여가시설 및 서비스 등 3가지 요소와 관련된 정책 과정 그리고 여가 환경을 모두 포함함
이철원 (2015)	여가정책은 여가에 대한 공적인 계획, 조직 그리고 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실행 목적은 거시적으로 국민 전체와 미시적으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 만족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의 여가 참여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정책

〈표 2〉는 세대별 여가정책 특성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 활동 실태와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으며(이현아, 2003; 오영희, 2012),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한 노인의 여가 시간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 활동 현황과 여가 복지시설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황남희, 2015). 박지승(2012)은 청년세대와 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0대 장년층의 여가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수현(2017)은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 중심으로 노동과 소득을 중심으로 한 여가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를 검토하며, 청년을 위한 맞춤형 여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전적 여가 활동을 포함한 여가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Hobza et al.,

2022). 이외에도 여가산업 분야에서 여가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성범 외(2023)는 여가산업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스포츠, 관광, 엔터테인먼트, 게임, 플랫폼 비즈니스 등 다섯 개의 여가산업 육성 정책을 제시하였다.

〈표 2〉 세대별 여가정책 특성

	세대별 여가정책 특성
청년층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 중심으로 노동과 소득을 중심으로 한 여가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를 검토하며, 청년을 위한 맞춤형 여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이수현, 2017)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전적 여가 활동을 포함한 여가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함(Hobza et al., 2022)
중장년층	50대 장년층의 여가생활은 휴식형 활동에 집중되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임. 이는 여가 활동 참여를 위한 접근성과 정보 활용 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특히 여성,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짐. 이러한 결과는 50대 장년층의 여가 활동을 다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함(박지승, 2012)
고령층	노인의 여가 활동 실태와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이현아, 2003; 오영희, 2012)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한 노인의 여가 시간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서 노인의 여가 활동 현황과 복지시설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황남희, 2015)

또한, 윤지인 외(2023)는 야외여가활동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회복 환경지각이 여가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득수준이 이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회복 환경지각이 자연환경에서 느끼는 심리적 회복감으로 이 감정이 여가정책에 대한 지지 의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탐구하였다. 이처럼, 여가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공공정책 분야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여가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여가 시간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의 행복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여가정책이 각 세대와 집단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여가생활 만족 개념 및 선행연구

생활환경 만족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전영옥·박세진, 2024). 특히, 여가생활 만족은 개인이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의미하며, 이는 삶의 질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한진오 외, 2019; 민경선, 2020; 조승행, 2024). 여가생활 만족은 단순히 여가 활동의 양적인 측면을 넘어서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질적인 만족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여가 활동을 통해 얻는 개인적인 만족은 그 자체로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여가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또한, 여가 활동의 주관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개인은 여가 활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여가생활 만족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7%는 자신의 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2023). 이러한 결과는 여가생활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여가정책의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여가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전략은 맞춤형 여가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여가 활동 참여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 여가문화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정책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가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크게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여가 활동 특성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광재현·홍경완(2017)은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생활 만족이 증가하며, 이는 삶의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허중욱(2014)은 학력 수준이 여가생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거주지역은 여가생활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가 활동 특성 요인으로는 여가 활동의 유형, 참여 수준, 여가 공간 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학섭(1997)은 스포츠 활동과 취미, 교양 활동 참여 집단이 높은 여가생활 만족을 보였으며 여가 공간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공 여가시설의 서비스 공정성이 여가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국·김선희, 2017).

이러한 연구들은 여가시설 이용 서비스 품질이 여가생활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가정책과 여가생활 만족과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진오 외(2019)는 공공 여가시설 만족도가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여가정책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의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수 외(2020)는 여가정책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 관계에서 여가 인식의 조절 효과를 검증했다. 또한, 김보람 외(2022)는 여가정책 만족이 여가 인식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지역 규모에 따른 여가정책 효과를 분석한 조승행(2024)의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과 광역시 및 기타 지역 간에 여가정책이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경선(2020)의 연구에서는 노인 여가생활의 특성과 여가 자원이 여가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가구 형태에 따라 여가생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가정책과 공공 여가시설의 질적 향상이 여가생활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며, 여가정책의 설계에서 국민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여가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정책이 결합하여야,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세대에 따른 여가시설의 이용과 여가 활동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세대 특성에 맞춘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여가정

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결국 여가생활 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세대별 요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여가정책 만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여가생활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국민여가활동조사 선행연구

‘국민여가활동조사’는 2006년부터 국민의 여가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조사 목적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국내 여가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의 여가 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남녀 10,000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조사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제주 및 세종 포함)이다. 조사 방법은 태블릿 PC를 이용한 가구 방문 면접 조사이며 조사 내용은 국민의 여가 활동 참여 실태, 여가 시간 및 비용, 여가 공간 이용과 여가 자원에 관한 인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향후 추이 변화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 시행되었다(김지혜,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를 2차 자료로 활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국민여가활동조사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박민정 (2015)	중산층의 여가 활동이 여가생활 만족도와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데이터 활용, ANOVA 분석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 활동 차이가 여가생활 만족도와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차재빈 (2018)	여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국민여가활성화 방안 노출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데이터 활용, 수정된 IPA 분석	다양한 여가시설과 관련 법 제도개선, 휴가 보장 등의 정책이 여가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침
한진오 외 (2019)	공공 여가시설 만족도가 여가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여가정책 만족도 매개효과 분석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데이터 활용, 회귀분석, 경로분석	공공 여가시설 만족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가정책 만족도가 여가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짐
이윤영 (2019)	사행산업 경험자가 인식하는 공공 여가시설과 여가정책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데이터 활용, Process Macro 3.3 사용,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	공공 여가시설에 대한 인식이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여가정책 중요도와 민간 여가시설 인식이 이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발생함
김은수 외 (2020)	공공 여가시설 만족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여가 인식의 조절 효과분석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데이터 활용, 다중회귀분석	여가 인식이 공공 여가시설 만족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여가 인식이 높을수록 공공 여가시설 만족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김지혜 (2022)	청년세대의 공공 여가시설 만족도가 여가 인식과 여가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1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데이터 활용, SPSS 28.0을 이용한 분석	공공 여가시설 만족도와 여가정책 만족도, 여가 인식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여가 인식은 공공 여가시설 만족도가 여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
신아름 (2023)	지역 규모가 여가정책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2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데이터 활용, 여가정책의 중요성 인식 분석	대도시에서 여가시설 다양성과 여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게 인식됨, 지역 규모가 클수록 여가정책의 중요성 인식 증가

이유진 외 (2023)	코로나 전후 여가 시간과 여가 만족, 행복 수준을 비교분석	2019년, 2021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 SPSS를 통한 분석	코로나 전후 여가 시간이 증가했으나, 여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낮았으며, 여가생활 만족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침
조승행 (2024)	지역 규모에 따른 여가정책 만족도가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데이터를 사용,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	서울·경기와 광역시, 기타 지역 간 여가정책의 영향 차이를 발견, 여가 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만족도가 낮음
김정훈 (2024)	IPA를 활용하여 여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여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정책집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데이터를 사용, IPA 매트릭스 작성, SPSS 28.0으로 분석	여가정책 평가 항목 중에서 여가시설 다양성과 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중요도가 높고 만족도가 일치하는 높은 순위를 보임. 여가정책이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여가시설 다양성으로 나타남

박민정(2015)은 ‘국민여가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 활동 차이가 여가생활 만족도와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차재빈(2018)은 다양한 여가시설과 관련 법 제도개선, 휴가 보장 등의 정책이 여가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한진오 외(2019)는 공공 여가시설 만족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가정책 만족도가 여가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윤영(2019)과 김은수 외(2020)는 공공 여가시설에 대한 인식이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여가 인식이 공공 여가시설 만족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지혜(2022)는 공공 여가시설 만족도와 여가정책 만족도, 여가 인식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여가 인식은 공공 여가시설 만족도가 여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으며 여가시설 만족도와 여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재빈(2018)은 여가시설의 다양성과 관련 법 제도개선이 여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아름(2023)은 대도시에서 여가시설 다양성과 여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게 인식된다고 밝혔다. 김정훈(2024)은 여가정책의 중요 항목으로 여가시설의 다양성과 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하며, 이는 여가정책의 효과와 여가 인식 간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국민여가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가정책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공공 여가시설 만족도, 여가 인식 등에서 연구가 진행됐으나 조사 데이터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내용 중 여가정책 만족 변수, 여가생활 만족 변수와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연령을 조절 변수로 활용하여 그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세대

세대(generation)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연구자의 관점과 이론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한다(이은희 외, 2015).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대의 개념은 같은 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성장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말한다(이종원 외, 2009). 윤희진 외(2016) 연구에서는 2014년 국민 여가 활동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Kertzer의 출생 코호트 개념을 기준으로 7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한국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경험의 차이에 따라 세

대 간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대는 특정 기간에 특정 지역에 태어난 집단으로 같은 세대 집단의 개인들은 공통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경험을 공유하게 되며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특정한 경험과 문화를 갖게 된다(Strauss & Howe, 1991). 이는 출생 코호트(Birth Cohort)로 설명되며 동일한 기간에 출생하여 동시대의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고, 유사한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유정균 외, 2021).

박선우(2023)는 한국인의 세대별 여가 개념 인식 연구에서 세대별 코호트 개념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베이비붐 세대(1950~1964)는 산업화와 경제적 성취, 민주화 전환 등 중요한 사회 변화를 경험한 세대로 전체 인구의 약 14.5%를 차지하며, 위계질서와 집단 지향성을 중시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조한다. 또한, 복지 지향적인 사회를 선호한다. X세대(1965~1979)는 개인주의적 추구에 집중하며 경제적 번영을 경험한 세대이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취업 시장에 진입해 도전적인 환경에 익숙해졌으며, 조직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 M세대(1980~1994)는 디지털 기술 발전 속에서 성장한 세대로, 디지털에 능통하고 수평적 소통을 선호한다. 인정, 성취,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독립이 지연되고 부채가 증가했다. Z세대(1995~2004)는 IT 발전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다. 이들은 개인주의적이며, 사회적 규범보다 개인적 만족을 중시한다. 또한 다양한 가치와 성향, 문화 교류에 개방적이다. 이와 같은 세대별 분류는 각 세대가 경험한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그로 인해 형성된 가치관, 행동 양식, 여가 활동에 대한 태도 등을 반영하려는 특징이 있다. 각 세대는 그 시기 특유의 중요한 사건들(산업화, IMF 위기, 디지털 혁명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유한 사회적 환경과 영향을 바탕으로 여가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선순위가 다르다.

경기연구원(2021)은 MZ세대의 밀레니얼과 Z세대 사이에서 여가 활동 가치관이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세대 구분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시니어 세대(1954년 이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X세대(1964~1979년), 밀레니얼(Y)세대(1980~1994년), Z세대(1995~2005년)로 정리했으며 세대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가 활동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은 세대 연구는 각 세대가 경험한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여가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각 세대는 자신이 성장한 시기와 환경에 따라 여가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므로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은 각 세대가 선호하는 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세대 간의 가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여가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세대 구분은 '2023년 국민 여가 활동 조사'의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2023년 국민 여가 활동 조사'는 다단계 층화집락표집을 통해 지역별로 추출한 전국 만 15세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를 토대로 한다. 특히, 이 자료의 연령은 15~19세를 제외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의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층은 청년기본법¹⁾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포함해서 15세부터 30대까지(신아름, 2023), 중장년층은 통계청의 중

1) 청년기본법 제3조 1항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년층 행정통계(40~64세 이하)와 경기도와 서울시 등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조례(40~65세 미만)를 고려해서 40대부터 50대까지로 하였다(송진영 외, 2024). 우리나라 노인의 연령 기준은 노인 복지법과 통계청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간주한다. 이 외에도 고령층 또는 고령자라는 용어는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70세 이상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대를 청년층(15세~39세), 중장년층(40세~59세), 고령층(6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Ⅲ. 연구설계

1.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만 15세 이상 국민의 여가 활동 참여 실태와 여가만족을 분석함으로써 국민의 여가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주요 조사 내용은 여가 활동 참여 실태, 여가 공간 이용 현황, 다양한 여가 활동, 여가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은 세부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2023년 8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78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었으며 표본은 선정된 가구와 가구 내 만 15세 이상 상주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방식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 유효 응답자는 총 10,040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여가 인식 및 만족에 관한 설문자료 중 여가정책 만족에 관한 변수와 여가 인식의 설문 내용에서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 관련 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SPSS 28.0을 분석 도구로 활용했으며 연구 목적을 위해 측정된 자료들이 서로 상관있는 요인으로 추출 가능한지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주성분 분석, 베리맥스 회전법을 이용하여 요인 적재량을 구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 분석을 시행했으며,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함께 기술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혼인 여부, 학력, 소득수준과 지역 규모에 따른 여가정책 만족 그리고 여가생활 만족의 평균 차이 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Hayes(2022)의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여 여가정책 만족과 여가생활 만족 관계에서 세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원래, SPSS 프로그램에서 조절 효과를 검정하려면 선형회귀로 들어가서 3단계 또는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를 곱하여 생성한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이라고 하는 변수를 마지막 단계에 투입함으로써 R제곱 변화량(delta R-square)에 대한 유의성(유의확률 F변화량)과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즉, 베타(B) 값에 의한 유의확률(p)값으로 조절효과를 검정

하게 된다. 반면에, PROCESS macro를 개발한 Hayes는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항' 변수가 투입된 마지막 단계의 결과만으로도 조절 효과를 검정할 수 있으므로 이전 단계의 결과는 생략하고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 변수를 동시 투입한(Simultaneous Entry) 마지막 단계의 결과만 보여준다(Hayes, 2022). 따라서, 위계적 회귀분석과 PROCESS macro에서의 조절효과 검정은 보여주는 방식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 결과값은 동일하다.

2. 변수 설정

1) 종속변수

여가생활 만족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여가 경험의 척도로서 만족도를 의미한다(최순화, 2021). 여가생활 만족은 단순히 여가 활동의 양적인 측면을 넘어서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질적인 만족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가 종속변수인 여가생활 만족의 설문지 문항은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표에서 여가 인식 실태 목록 중 Q27(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 Q28(여가 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Q29(여가 활동이 삶의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 7점 척도로 1. 매우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7. 매우 만족한다로 구성하였다.

2) 독립변수

여가정책 만족은 여가와 관련된 공공 차원의 계획 수립, 조직화 그리고 실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주된 목적은 국민의 여가만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이운영, 2019). 독립변수인 여가정책 만족 설문지 문항은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표에서 여가 인식 실태 목록 중 Q24_1(여가시설의 다양성), Q24_2(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Q24_3(여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Q24_4(여가 관련 동호회 육성 및 지원), Q24_5(소외계층 여가생활 지원), Q24_6(여가 관련 법규와 제도개선), Q24_7(공휴일과 휴가를 법적 보장)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 7점 척도로 1. 매우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7. 매우 만족한다로 구성하였다.

3) 조절변수

세대를 구분하기 위해 출생 코호트(Birth Cohort)로 세대를 정의한다. 출생 코호트는 동일한 기간에 출생하여 동시대의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고, 유사한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유정균 외, 2021). '2023 국민 여가 활동 조사'는 다단계 층화 집락표집을 통해 지역별로 추출한 전국 만 15세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를 토대로 한다. 특히, 이 자료의 연령은 15~19세를 제외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의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다. 조절 변수인 세대 관련 설문지 문항은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표에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목록 중 DM2_1(15~19세), DM2_2(20대), DM2_3(30대), DM2_4(40대), DM2_5(50대),

DM2_6(60대), DM2_7(70대 이상)을 사용했다. 청년층은 15~19세, 20대, 30대로 중장년층은 40대와 50대, 고령층은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은 일반적인 연령대별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나뉜다. 청년층은 「대한민국 청년기본법」에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을 만 15세부터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인식 기준을 참고해 15세에서 39세로 정의하였다. 중장년층은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연령대별 특성을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40~64세, 고령층을 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4〉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변수	여가생활 만족	Q27: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 Q28: 여가 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Q29: 여가 활동이 삶의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독립변수	여가정책 만족	Q24_1: 여가시설의 다양성 Q24_2: 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Q24_3: 여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Q24_4: 여가 관련 동호회 육성 및 지원 Q24_5: 소외계층 여가생활 지원 Q24_6: 여가 관련 법규와 제도개선 Q24_7: 공휴일과 휴가를 법적 보장
조절변수	세대	청년층: DM2_1(15~19세), DM2_2(20대), DM2_3(30대) 중장년층: DM2_4(40대), DM2_5(50대) 고령층: DM2_6(60대), DM2_7(70대 이상)
통제변수	학력	1=초졸이하, 2=중졸, 3=고졸, 4=대졸이상
	혼인여부	1=미혼, 2=기혼
	가구소득	1=100만원 미만, 2=100~200만원, 3=200~300만원, 4=300~400만원, 5=400~500만원, 6=500~600만원, 7=600만원 이상
	지역규모	1=대도시, 2=중소도시, 3=대도시
	신체적 건강상태 인식	1=전혀 건강하지 않음, 2=건강하지 않음, 3=보통이다, 4=건강하다, 5=매우 건강하다
	정신적 건강상태 인식	1=전혀 건강하지 않음, 2=건강하지 않음, 3=보통이다, 4=건강하다, 5=매우 건강하다
	사회적 건강상태 인식	1=전혀 건강하지 않음, 2=건강하지 않음, 3=보통이다, 4=건강하다, 5=매우 건강하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 변수로는 학력, 혼인 여부, 가구소득, 지역 규모,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상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학력의 경우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 참여의 수준과 방식이 다를 수 있다(Bourdieu, 1984). 혼인 여부는 개인의 여가 시간과 여가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기혼자는 가족 중심의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많으며 미혼자는 개인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ngleton & Wolfinger, 2018). 가구소득은 여가 활동의 접근성과 선택에 큰 영향을 주며 소득이

높은 가구는 다양한 고비용 여가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Veal, 2017).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상태는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생활 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증명한다(김수봉, 2010). 이러한 통제 변수는 여가정책 만족과 여가생활 만족과의 관계에서 통제 변수로 조절 변수와 함께 영향 관계 여부를 증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변수 설정은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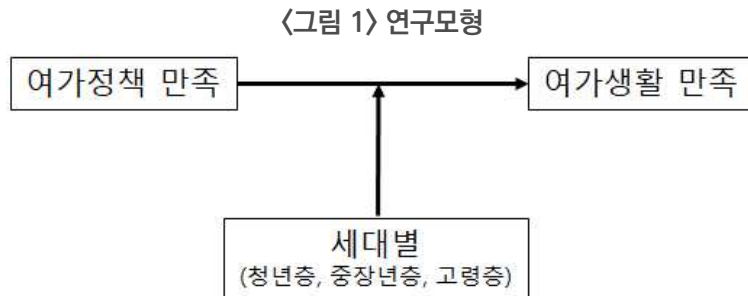
3.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본 연구는 상기 이론적 고찰에 근거해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여가정책 만족은 여가생활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여가정책 만족은 여가생활 만족에 정적(+인) 관계는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2: 여가정책 만족은 여가생활 만족에 정적(+인) 관계는 청년세대보다 고령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활용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5>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5,006명(49.9%), 여성이 5,034명(50.1%)이었으며, 세대는 청년층 3,352명(33.4%), 중장년층 3,612(36%), 고령층 3,076(30.6%)으로 구분했다. 세대의 경우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표에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목록 중 DM2_1(15~19세), DM2_2(20대), DM2_3(30대), DM2_4(40대), DM2_5(50대), DM2_6(60대), DM2_7(70대 이상)을 사용했다. 청년층은 15~19세, 20대, 30대로 중장년층은 40대와 50대, 고령층은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학력은 고졸 3,908(38.9%), 대졸 이상 4,082(40.7%)이며 혼인상태는 미혼이 2,814명(28.0%), 기혼이 6,040명(60.2%), 사별/이혼/기타가 1,186명(11.8%)으로 조사되

었다.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 828명(8.2%), 100~200만 원 744명(7.4%), 200~300만 원 1,300명(12.9%), 300~400만 원 1,614명(16.1%), 400~500만 원 1,725명(17.2%), 500~600만 원 1,566명(15.6%), 600만 원 이상 2,263명(22.5%)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자가 4,304명(42.9%), 중소도시 거주자가 3,451명(34.4%), 읍면지역 거주자가 2,285명(22.8%)으로 나타났다.

〈표 5〉 표본의 일반적 특성

특성	n	%	특성	n	%		
성별	남성	5,006	49.9	혼인여부	미혼	2,814	28.0
	여성	5,034	50.1		기혼	6,040	60.2
세대	청년층	3,352	33.4	가구소득	사별/이혼/기타	1,186	11.8
	중장년층	3,612	36.0		100만원 미만	828	8.2
	고령층	3,076	30.6		100~200만원	744	7.4
학력	초졸이하	983	9.8	200~300만원	1,300	12.9	
	중졸	1,067	10.6	300~400만원	1,614	16.1	
	고졸	3,908	38.9	400~500만원	1,725	17.2	
	대졸이상	4,082	40.7	500~600만원	1,566	15.6	
				600만원 이상	2,263	22.5	
지역규모			대도시	4,304	42.9		
			중소도시	3,451	34.4		
			읍면지역	2,285	22.8		

2.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여가정책 만족과 여가생활 만족의 측정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탐색적 요인분석(EFA)

요인명	변수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α
여가정책 만족	여가 관련 동호회를 육성 및 지원	.838	4.738	47.375	.920
	보디나는 여가생활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선	.835			
	여가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배치	.829			
	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817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	.817			
	공휴일과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	.801			
	다양한 여가시설	.788			
여가생활 만족	여가 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건	.906	1.968	19.679	.693
	여가 활동이 귀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891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	.544			

주: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880
Bartlett Test of Sphericity=55227.842, 유의확률=.000, 누적분산율=67.054%

표본 적절성의 KMO값이 .88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집합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chi^2 = 55227.842$, p 값이 .000이고 $p < .001$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 적재량은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하였고, 총분산의 67.054%를 설명하는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여가정책 만족의 총분산의 47.375%를 설명하며 Cronbach's α 계수는 .920으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가생활 만족은 총분산의 19.679%를 설명하며, Cronbach's α 계수는 .693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평균 차이검정

〈표 7〉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력, 혼인 여부, 소득수준, 지역 규모, 세대)에 따라 변수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으며, Scheffé 사후검정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학력, 혼인 여부, 소득수준, 지역 규모, 세대는 변수의 평균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소득수준과 지역 규모가 평균값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정책 및 여가생활 만족을 높이기 위해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평균 차이검정

구분		n	M	SD	t/F	p	scheffé
성별	남성	5,006	5.24	.76	-.256	.798	
	여성	5,034	5.24	.75			
학력	중졸이하a	2,050	5.06	.79	116.372	.000***	a < b < c
	고졸b	3,908	5.21	.75			
	대졸이상c	4,082	5.36	.72			
혼인여부	미혼a	2,814	5.30	.75	36.783	.000***	c < b < a
	기혼b	6,040	5.24	.74			
	사별/이혼/기타c	1,186	5.08	.81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a	1,572	5.07	.80	62.459	.000***	a < b < c < d
	200~400 미만b	2,914	5.19	.75			
	400~600 미만c	3,291	5.26	.73			
	600만원 이상d	2,263	5.39	.73			
지역규모	대도시a	4,304	5.35	.71	92.861	.000***	c < b < a
	중소도시b	3,451	5.17	.78			
	읍면지역c	2,285	5.12	.75			
세대	청년층a	3,352	5.32	.73	40.085	.000***	c < b < a
	중장년층b	3,612	5.23	.74			
	고령층c	3,076	5.15	.78			

* $p < .05$, ** $p < .01$, *** $p < .001$

4. 상관관계 분석과 기술통계량

연구에 투입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신체적 특성은 정신적 특성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 = .559, p < .001$) 또한 사회적 특성과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546, p < .001$). 정신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 .747, p < .001$) 여가정책 만족은 정신적 특성($r = .154, p < .001$) 및 사회적 특성($r = .111, p < .001$)과 낮은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가생활 만족은 신체적 특성($r = .323, p < .001$), 정신적 특성($r = .318, p < .001$), 사회적 특성($r = .347, p < .001$)과 각각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한, 여가정책 만족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95, p < .001$).

기술 통계량 최솟값(Min)과 최댓값(Max)은 모든 변수에서 1에서 7까지 동일한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Mean)은 여가생활 만족이 5.24로 가장 높았고, 여가정책 만족은 4.5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의 평균값은 각각 5.35, 5.17, 5.19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은 여가생활 만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히 사회적 특성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여가정책 만족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는 낮은 수준이지만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정책과 여가생활의 만족은 상이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상관관계분석과 기술통계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여가정책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신체적	1				
정신적	.559***	1			
사회적	.548***	.747***	1		
여가정책 만족도	.111***	.154***	.112***	1	
여가생활 만족도	.323***	.318***	.347***	.195***	1
최솟값	1	1	1	1.00	2.00
최댓값	7	7	7	7.00	7.00
평균	5.35	5.17	5.19	4.55	5.24
표준편차	1.05	1.10	1.12	.92	.75

*** $p < .001$

5. PROCESS macro 조절효과(Model 1)

여가정책 만족과 여가생활 만족 간의 관계에서 세대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Hayes(2022)의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상태는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이러한 통제 변수는 여가정책 만족과 여가생활 만족과의 관계에서 통제 변수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여가정책 만

족과 세대 변수를 평균 중심화한 후 동시에 투입분석 한 결과 여가정책 만족과 세대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중장년층(B)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p=.716$), 고령층(C)에서는 $B=.063(p < 0.01)$ 으로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에서 여가정책에 대한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대별 여가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층은 여가정책의 혜택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여가생활 만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중장년층은 정책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9〉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조절효과 결과

변수	B	SE	t	p
여가정책만족(A)	.091	.013	7.202	.000***
중장년층(B)	.018	.020	.855	.393
고령층(C)	.146	.025	5.895	.000***
A * B	-.006	.018	-.364	.716
A * C	.063	.018	3.430	.001**
통제변수	학력	.016	6.652	.000***
	혼인여부	.021	.869	.385
	가구소득	.017	3.486	.001**
	지역규모	.014	9.931	.000***
	신체적	.009	14.857	.000***
	정신적	.010	3.362	.001**
	사회적	.009	13.818	.000***
F			190.6401(.000***)	
R^2			.186	
ΔR^2			.001	

* $p < .05$, ** $p < .01$, *** $p < .001$

세대에 따른 조건부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여가정책 만족과 여가생활 만족 간의 단순 회귀선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가정책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접근성 수준(정도가 낮은 수준인 경우 -1SD, 보통은 Mean, 높은 수준은 +1SD)에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 가지 조건(Aiken & West, 1991)에 따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단순 기울기는 다음과 같다. 청년층($B=.091, p < .001$)과 중장년층($B=.085, p < .001$)에서는 여가정책 만족과 여가생활 만족 간의 관계가 낮은 기울기를 보였다. 이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여가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가지거나, 정책이 이들의 여가생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반면, 고령층($B=.154, p < .001$)에서는 여가정책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령층에서 여가정책의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이 여가정책의 혜택을 강하게 체감하며, 정책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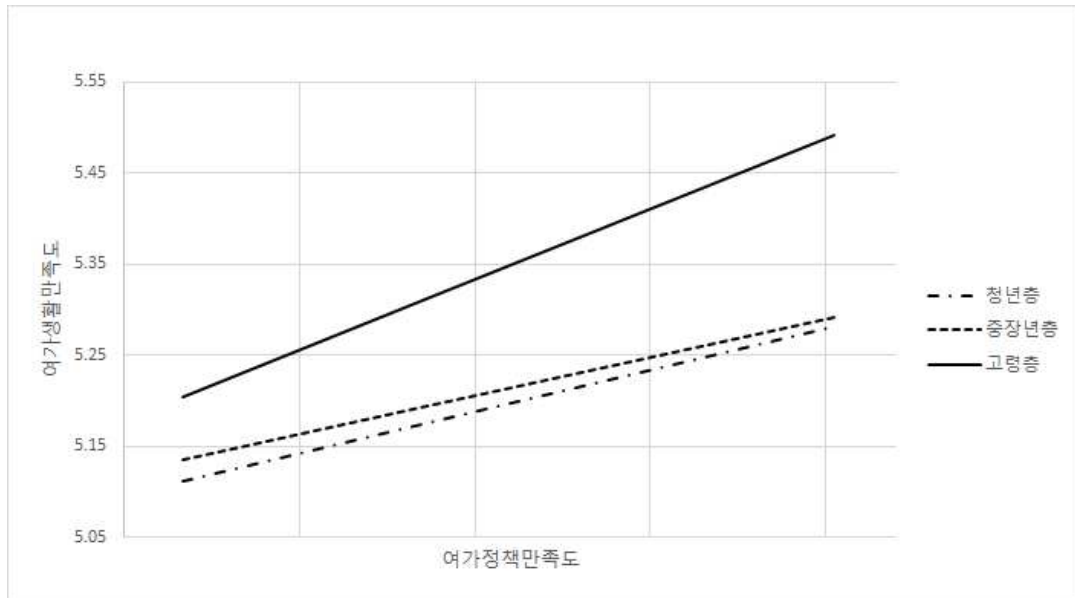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조절변수의 조건부 효과 검정

조절변수	수준	B	SE	t	p	LLCI	ULCI
청년층	-1SD	.091	.013	7.202	.000***	.063	.116
중장년층	Mean	.085	.013	6.745	.000***	.060	.109
고령층	+1SD	.154	.014	11.395	.000***	.128	.181

*p<.05, **p<.01, ***p<.001

〈그림 2〉 여가정책 만족과 여가생활 만족 관계에서 세대별 조절효과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여가정책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에 있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대별 맞춤형 여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설 1과 가설 2를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여가정책 만족과 세대 변수를 평균 중심화한 후 동시에 투입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설 1에 대한 검증에서는 여가정책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세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여가정책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가설 2-2와 일치하였다. 세대별 조절 효과분석 결과는 중장년층(B)에서는 여가정책 만족과 여가생활 만족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p= .716), 고령층(C)에서는 여가정책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B = .063, p < .001$). 이 결과는 가설 2-2를 지지하는 것으로, 고령층에서 여가정책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정책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층($B = .091, p < .001$)과 중장년층($B = .085, p < .001$)에서는 여가정책 만족과 여가생활 만족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울기를 보였으며, 이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여가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가지거나, 정책이 이들의 여가생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반면, 고령층에서는 여가정책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B = .154, p < .001$). 이는 고령층에서 여가정책의 혜택이 여가생활 만족을 크게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즉, 고령층이 여가정책의 혜택을 강하게 체감하며, 정책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조민구(2015)와 전형상(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주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들 연구와 마찬가지로, 세대별 여가정책의 필요성은 각 세대의 여가 활동 선호도와 정책 만족도 차이에서 나타나며, 세대별 여가 활동의 유형과 선호도가 달라 여가정책의 효과도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젊은 세대는 여가 시간이 부족하지만, 여가비용 지출이 많고 행복감도 높다는 보고가 있지만, 고령층은 접근이 가능한 여가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여가 활동 참여에 제약 받는다는 선행연구(김수아·김남조, 2020; 민경선, 2016; 윤혜진 외, 2016)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층이 여가정책의 혜택을 강하게 체감하며 여가생활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대별로 여가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특히, 고령층은 여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여가생활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전형상(2017)의 연구와 유사하며,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여가정책에 관한 관심이 낮고 정책의 효과가 미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민구(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에 따라 여가정책이 세대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층을 위한 포괄적이고 접근이 쉬운 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보강한다. 또한, 여가정책의 체계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층을 위한 여가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층이 여가정책의 혜택을 가장 강하게 체감하며, 정책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여가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 세대는 여가정책에 대한 만족이 낮은 편으로 정책이 이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여가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여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중장년층의 경우 가족 중심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거나 직장 내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여가정책의 체계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각 세대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여가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를 도출하였으며, 지방 정부는 세대 간 균형을 맞춘 정책을 통해 더 나은 여가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의 논지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는 각 세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재현·홍경완. (2017), 소득에 따른 여가 불평등, 「관광연구」 32(5).
- 김광득. (1994). 「현대여가론: 이론과 실제」, 서울: 백산출판사, 1994.
- 김선희·김현나. (2005), 여가, 레크리에이션학: 한국의 여가정책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4(2).
- 김수봉. (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노인복지연구」 47.
- 김수아·김남조. (2020),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여가환경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비교-여가공유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2(3).
- 김보람·이유진·김매이. (2022),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여가정책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 김정인. (2024). 노인의 사회적 고립 인식 영향요인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8(2).
- 김정훈. (2024). IPA를 활용한 여가정책 만족도 분석,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HSC) 6.4(2024).
- 김지혜. (2022). 청년세대의 공공여가시설만족이 여가인식, 여가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21년 국민여가활동조사 패널자료, 「관광연구저널」 36(8).
- 김양래. (2009). 여가활동유형과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한 삶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20(3).
- 김용국·김선희. (2017), 공공여가시설의 서비스 공정성이 여가만족도 및 기관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 15(2).
- 김은수·정 득·이종석. (2020), 공공 여가시설 만족과 여가정책 만족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여가인식의 조절효과: 국민여가활동조사(2018)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4(2).
- 노화준. (1996). 한국관료의 정책역량변화, 「행정논총」 34(2).
- 민경선. (2020). 노인의 여가생활 특성과 여가자원이 여가생활만족도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44(3).
- 박민정. (2015). 중산층의 여가활동 특성 및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를 바탕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 박선우. (2023). 한국인의 세대별 여가개념 인식 연구, 「대중음악콘텐츠」 7(2).
- 박수정·김민규·김미향·신규리·윤 주·조영철. (2023), 제2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가교육정책에 관한 소고, 「여가학연구」 21(2).
- 박지승. (2012). 도시지역 50대 장년층의 여가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4

- 송진영·정요한·김규옥·백별아. (2024), 펍택시 증장년 생활실태 및 여가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 보고서」 2024(3).
- 신아름. (2023). 여가정책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연구: 지역규모를 중심으로,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37(3).
- 오영희. (2012). 노인의 여가활동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2.
- 윤지인·박수정·김민규. (2023), 생태공원 방문 관광객의 회복환경지각이 여가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검증, 「관광진흥연구」 11.
- 윤혜진·김영문·김은희. (2016), 세대별 여가 인식, 활동 그리고 행복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28(12).
- 유정균·김동영·유영성·이상훈·김을식·김정훈·최혜진. (2021),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정책연구」.
- 이명우·홍윤미·윤기웅. (2016), 여가 활동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여가만족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0(2).
- 이수현. (2017). 청년 여가정책의 필요성 연구: 청년세대의 여가 자원 분포 특성 검토를 통하여, 「여가학연구」 15(3).
- 이은희·김경자·유현정·차경옥·이영애·이준영. (2015), 세대별 가계경제구조 비교분석, 「소비자 정책교육연구」 11(2).
- 이유진·황선환·황희성. (2023), 대한민국 국민의 여가시간은 충분한가?: 국민여가활동조사를 기반으로 코로나 전, 후 비교, 「한국융합과학회지」 12(5).
- 이윤영. (2019). 사행산업 경험자의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정책 중요도와 민간여가시설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3(2).
- 이종원·김영인. (20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 II: 사회·정치 의식 및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철원. (2015). 「현대여가학」, 대한미디어, 2015.
- 이현아. (2003). 고령화시대 노인의 여가생활향상을 위한 여가정책의 방향-노인의 여가실태에 근거하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 전성범·장찬희·김매이. (2023), 제2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위한 여가산업 분야 정책 제안, 「여가학연구」 21(2).
- 전형상. (2017). 노인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노인정책 분석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6(1).
- 정영금·윤소영. (2018), 1인 가구의 세대별 여가행태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4).
- 조민구. (2015). 여가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가활동 영향요인의 실증적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 조승행. (2024). 지역규모에 따른 여가정책이 여가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8(3).
- 차재빈. (2018). 국민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가정책에 관한 연구: 수정된 IPA를 활용하여, 「관광레저연구」 30(5).

- 최숙희. (2009). 여가활동 유형과 정책과제: 연령과 가구소득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6(2).
- 최순화. (2021). 1인 가구의 여가태도, 여가소비, 여가만족의 영향관계 분석: 소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3(6).
- 최학섭. (1997). 초등학교 아동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 정책대상으로서 여가의 영역 및 추진체계.
- 한상겸. (2022).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에 따른 제약요인과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광진흥연구」 10(2).
- 한수정·조용준. (2010).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여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12(1).
- 한진오·정득·이종석. (2019). 공공여가시설만족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가정책 만족의 매개효과, 「여가학연구」 17(2).
- 허중욱. (2014). 여가시설 이용자의 여가만족과 여가제약, 「관광연구저널」 28(12).
- 황남희. (2015). 노인의 여가활동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23.
- 2023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https://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281>.
- 2023 국민여가활동조사 <https://stat.mcst.go.kr/portal/subject/subject01/STBL-1014264>.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obza, V., Maracek, M., & Hamrik, Z. (2022). Organized Sport Activities of 11 to 15-year-old adolescents: Trends from 2010–2018 and socioeconomic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0): 6074.
- Singleton, R. A., & Wolfinger, N. H. (2018). The happiness penalty of single hood: Marriag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9(3): 1233–1251.
- Strauss, W., & Howe, N. (1991). *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 1584 to 2069*. New York, NY: William Morrow and Co.
- Veal, A. J. (2017). Leisure, income inequality and the Veblen effect: Cross-national analysis of leisure time and activities. *World Leisure Journal*, 59(4): 279–296.

송금희(宋金姬): 최종학위(관광학 박사, 2024년, 경기대 일반대학원, 도시 어메니티 구성요인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여가태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이코리아투어 대표, 학문적 관심분야(여가정책, 지역관광, 지방정책), 저술(3권 이내), 발표논문(관광해설 유형별 시티투어 이용객 만족도 비교, 지역관광개발에 있어 내발적 발전의 구성요소 분석, 도시 어메니티의 요인분석에 관한 고찰), 주요경력(이코리아투어 대표, 경기대 관광종합연구소 비상임연구원, 경기도관광협회 이사), E-mail 주소 등을 중심으로 한 간략한 자기소개(현장에서 지자체와 함께 16년간 인바운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역여가와 지역관광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어 경기대 일반대학원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주요관심 분야는 여가정책, 지역관광, 지방정책 등이며 여가 동향연구와 비교연구에도 관심이 있음.(gumis@hanmail.net)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 of Gener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Leisure Policy and Satisfaction of Leisure Life: Focusing on the 2023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Song, Geum He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generational leisure policies on leisure satisfaction and based on the findings aims to propose a direction for generationally tailored leisure policies. This study measures the comparison of generational leisure policy satisfaction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based on secondary data from the 2023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The measurement items of the study included seven variables for leisure policy satisfaction and three variables for leisure life satisfaction all assessed using a 7-point Likert scale. The generations were categorized as follows: youth (ages 15-19, 20s, 30s), middle-aged (ages 40s and 50s), and elderly (ages 60 and above). The final sample of 10,040 data points was analyzed using SPSS 28.0, performing independent samples t-tests and one-way ANOVA. The moderating effect of gener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policy satisfaction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was examined using Hayes' (2022) PROCESS macro Model 1.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d that the impact of leisure policy satisfaction on leisure life satisfaction was most pronounced in the elderly group while it was relatively lower in the middle-aged and youth groups. In particular the elderly group strongly perceived the benefits of leisure policies which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ir quality of life.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and accessible leisure programs for the elderly while innovative and creative policies are required for the youth and middle-aged groups. This study by identifying the differential effects of leisure policies across generations provides crucial foundational data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eisure policie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Key Words: leisure policy, leisure life satisfaction,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generation study, generational differences